

高度成長과 企業의 動態的 積極性

姜 斗 龍

본고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고도성장의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제에 어떤 正의 성장충격이 가해진 경우, 이것이 기업구성의 변화를 초래하여 성장지향성이 강한 기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기업)의 투자성향이 높아지고 성장이 누적적으로 가속되는 현상(고도성장의 실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이같은 측면은, 미시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고도성장기의 일본 기업 등 고도성장경제의 기업들이 강한 성장지향성을 보인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고도성장경제가 두드러지게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더 나아가 그 투자율이 고도성장의 진전과 더불어 상승추이를 보이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의 논리는, 고도성장의 종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한국경제의 기업도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序

고도성장 과정에 있는 동아시아경제와 다른 경제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차이의 하나는 이들 경제의 투자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총소득에 대한 투자의 비율이 유난히 높으며 또 대부분의 경우 투자는 저축을 상회한다.⁽¹⁾ 아울러 이같은 거시적 현상의 미시적 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이들 경제에서 기업행태의 적극성 내지 성장지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기업이나 과거 고도성장기의 일본기업 행태의 특성에 대하여 이들의 매우 두드러진 적극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이윤극대화보다 오히려 성장극대화 내지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하는 행태를 강하게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음을 상기할 수 있다.

(1) Summers and Heston(1991)의 Data set에 의거하여 전세계 증서소득국을 1960-1985년간의 평균 투자율의 크기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눌 때 동아시아 고도성장국가(아시아 NICs 4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는 모두 최상위 그룹에 포함된다. 더욱이 이들의 투자율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최근으로 갈수록 대체로 더욱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의 투자율은 남미국가들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한다[World Bank(1993) pp.40-43]. 한편 1990년 현재 중국을 포함한 이들 동아시아 고도성장국가 중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일본도 고도성장기(1970년대 이전)에는 투자가 저축을 초과했다.

본고는 고도성장경제가 보이는 이같은 동태적 적극성(거시적으로는 높은 투자율, 미시적으로는 기업행태의 성장지향성)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즉 고도성장을 보이는 경제에서 기업들이 왜 그러한 적극성을 띠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시 고도성장의 실현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고도성장을 경제주체의 행태적 특성과 연관짓는 시각은 학술적 논문보다도 저널리스트틱한 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도 없지는 않다. 예컨대 Odagiri(1981)는 기업이 이윤과 성장률의 어떤 조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순수한 이윤극대화에 비해 거시적인 성장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남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이론모형의 한 응용으로, 고도성장기 일본기업의 행태가 성장 선호적이며 그것이 일본경제의 높은 성장을 가능케 한 배경의 하나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오다기리의 논리는 특정한 기업행태로부터 높은 성장을 도출하는 것이지, 왜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경제가 특정한 행태적 특성을 보이는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기업들의 행태적 특성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사회학적인 논리에 그치고 있다. 본고의 논리는 이같은 기존의 연구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첫째, 본고는 특정한 기업행태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성장의 잠재적 조건⁽²⁾을 갖춘 경제가 왜 특정한 행태적 특성을 보이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본고는 동태적 적극성의 배경으로서 개별기업의 행태적 특성이 아닌, 기업구성의 변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에서는, 공급측면의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제에서 일시적인 충격이 시장의 기업구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경제전체의 행태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변화를 촉발하게 됨을 보인다.⁽³⁾ 본고에서는 이같은 측면을 통해, 고도성장의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제에서 전체 경제가 특정한 행태적 특성(동태적 적극성)을 띠게 되면서 고도성장이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본고의 논리는 실제 고도성장을 거친 경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본고에서 주목한 기업구성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변화라는 논리는 비단 고도성장뿐 아니라 다른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유용한 설명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3) 그런 점에서 본고의 주된 논리는 미시적이라기 보다는 거시경제적인 것에 가깝다.

2. 루이스의 經濟의 假定

일반적으로 고도성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지 한계구분은 없다. 여기서는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례에 따라 연평균 1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경제성장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도성장으로 지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1950년대말 - 1970년대초의 일본,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아시아 NICs 4개국,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일부 ASEAN 국가⁽⁴⁾ 및 중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고도성장경제의 공통적 특징의 하나는 성장이 주로 생산성 상승보다는 자원의 투입증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Lau and Kim(1992), Young (1994a, 1994b) 등]. 즉 이들 고도성장은 주로 농촌부문의 대규모 잉여노동력 풀을 바탕으로 노동력과 자본의 대량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실제 이들 고도성장경제가 고도성장기간 중 농촌부문 취업인구 비중의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도성장은 경제가 충분히 성숙단계에 접어들기 이전 단계에서만 나타났다는 사실 등으로부터 직관적으로도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Young은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은 사실상 근대화(공업화) 과정에 다름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입각할 때 고도성장은 일찍이 Lewis(1954)가 제시하였던 무한노동공급하의 경제성장논리를 통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루이스는 잉여노동력이 존재하고 한계생산비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전통부문의 존재를 가정하여, 이 부문으로부터 노동공급을 통해 생산성의 상승 없이도 경제성장(즉 자원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무한노동공급이 가능한 경제에서의 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즉 고도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고도성장경제는 고도성장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소위 루이스의 轉換點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루이스의 전환점이란 농촌부문의 잉여노동력이 사라지고 농촌부문에서도 한계생산력 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Minami(1973)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경제는 1960년경, Bai(198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초에 이 전환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그러나

(4)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5) 전환점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당 정도 차이가 있다. 일본경제의 경우 Minami는 1960년경을 주장한 데 대해, Fei and Ranis(1964)는 1916-1919년을, Lewis (1958)는 1950년대를 전환점으로 보았다. 한편 Fei and Ranis(1975)는 한국과 대만 경제에 대해 1960년대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이 전환점 통과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여기서는 이같은 전환점 통과 이후의 고도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도성장은 일반적으로 성숙단계에 이르기 전의 경제에서 나타난다는 사실과 고도성장경제에서는 종종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고도성장경제는 일반적으로 성숙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경제라는 점에서 자본(투자)의 한계생산성이 선진국 경제, 혹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높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외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하다면 그 경제의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국제적인 평균, 혹은 자본의 국제적 차입비용보다 높은 한, 성장률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자본의 수확체감에 의해 한계생산성이 낮아져 국제적 차입비용과 같게 되면 고도성장은 종료되고, 신고전파적 성장함수를 가정한다면 성장률은 궁극적으로는 균제성장률, 즉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의 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로부터 잠정적으로 우리는 고도성장을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필요조건으로서, 경제가 루이스(1954)에서 상정한 상태, 즉 대규모의 유휴노동력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국제적인 자본차입비용(혹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세계평균)보다 높은 상태의 경제라는 조건을 상정할 수 있다. 편의상 이 조건을 넓은 의미에서의 루이스적 경제의 조건이라 부르기로 한다. 즉 여기서의 루이스적 경제란 루이스가 상정한 무한노동공급경제 뿐 아니라 루이스 전환점 통과 이후에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국제적인 평균(혹은 자본의 국제적 조달비용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같은 루이스적 경제의 조건이란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공급측면에서의 필요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3. 模 型

먼저 위에서 설명한 루이스적 경제를 상정한다.

아울러 우리는 투자를 위한 재원의 제약, 즉 저축의 제약을 무시하기로 한다.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해외로부터 얼마든지 차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루이스적 경제를 가정하여 성장율에 대한 생산함수상의 제약을 제거했고 또 저축의 제약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경제에서 성장률은 오로지 투자수요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본고의 논리는 공급측면에서는 고도성장을 위한 잠재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고도성장의 (투자)수요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된다.

과. 1960년대 중반에 각각 전환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3.1. 企業의 最適成長律

이제 고정자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상정해보자. 시장은 불완전경쟁적이어서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며 투자는 장기간을 소요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시장조건 하에서 기업은, 장래 수요에 대한 전망과 자신의 생산합수를 고려하여 생산능력의 최적 성장률을 도출한 뒤, 그에 따라 설비투자를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때 개별기업의 수요변화를 직접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전체의 추세성장률에 대해서는 시장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는 정보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의 추세성장률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자본)의 최적성장률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추세성장률에 대한 공통된 정보, 혹은 예상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假定 1 : 기업들은 향후 T 년간의 시장추세성장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시장추세성장률 전망하에서 향후 T 년간의 설비투자계획수립을 위한 최적성장률 내지 최적 자본증가율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 最適成長率(자본증가율)을 目標成長率이라 부르기로 한다. 기업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장 추세성장률의 전망치를 Ge , 시장내의 한 개별기업 i 의 기간중의 목표성장률을 g_i^* 라 표기하기로 한다(하첨자 i 는 경우에 따라 생략한다).

Ge 는 실제성장률(G)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적응적 기대형성 모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Ge(t) = \Psi \left[\sum_{i=1}^n \{G(t-i)/n\} - Ge(t-1) \right], \quad 0 < \Psi \leq 1$$

($Ge(t)$, $G(t)$ 는 각각 시점 t 에서의 예상 및 실제 성장률)

다만 편의상 당분간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추세성장률의 전망치(Ge)가 실제성장률(G)과 같은 경우($Ge = G$)를 상정하기로 한다.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假定 2 : 경제는 단일부문(단일시장)으로 구성된다.

假定 3 : 기업수의 추세적 변화는 없다.

假定 4 : 초기조건으로서 기업들의 규모는 초기상태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假定 5 : 기업들은 서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통상적인 이윤극대화에 따른다면 이 경우 목표성장율은 T 기까지의 이윤흐름의 현재가치와 T 기말 자본잔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극대화하는 성장률로서 도출된다. 이때 실제로 이윤 결정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것은 전체시장의 성장율(G)이나 그 전망치(Ge)가 아닌 그 기업에 대한 시장수요성장율이다(이를 g_i 로 표기한다). 설사 시장추세성장율이 알려져 있어도 개별기업에 대한 수요성장율(g_i)은 목표성장율의 미지의 변수로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하나의 전망치일 수밖에 없다. 다만 결정시점에서는 시장추세성장율이 알려져 있으므로 가정3) 하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수요성장율(g_i)은 시장추세성장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확률분포로 간주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이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업이 목표성장율을 도출함에 있어 투자로부터 얻으리라 예상하는 기대이윤의 크기뿐만 아니라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이윤의 분산)도 선호의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즉 극대화에 기대이윤의 크기뿐 아니라 이윤의 분산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이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의 위험기피도의 차이가 목표성장율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⁶⁾

이 경우 기업은 아래와 같이 기대이윤과 이윤의 분산의 함수인 기업효용함수를 바탕으로 그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⁷⁾ 즉 목표성장율 g_i^* 는 다음과 같은 극대화로부터 결정된다.

(6) 혹은 기업이 기대이윤만의 극대화가 아니라 기대이윤과 성장률의 조합을 극대화하며, 기업의 成長選好度의 차이에 따라 극대화의 대상으로서의 기대이윤과 성장률 조합의 구성비율이 다르다고 보아도 좋다.

(7) 효용함수에 기대이윤과 아울러 그 분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마치 포트폴리오이론에서 기대효용 극대화를 가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위험기피적인 기업은 기업효용이 이 분산의 감소함수로 나타날 것이고 위험선호적 기업은 그 반대일 것이다.

$$(3.1) \quad \max_{g_i^*} U\{ epr(g_i^*, Ge, \dots), \sigma_{epr} \}$$

(U : 기업효용함수, epr : 기대이윤 ($U_{epr} > 0$), σ_{epr} : 이윤의 분산)⁽⁸⁾

가정3) 하에서 위 기업효용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목표성장율은 대체로 Ge 에 근사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5)로부터 반드시 기업들의 목표성장율이 Ge 와 일치할 이유는 없다. 일반적으로 목표성장율이 높을수록 기대이윤의 분산이 커진다는 점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위험선호적인 기업일수록 목표성장율은 높고 위험기피적인 기업일수록 목표성장율은 낮을 것이다(혹은註6과 같이 성장선호도의 차이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성장선호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목표성장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가정3) 하에서 기업들의 목표성장율은 Ge 를 중심으로 하는 분포를 보일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기업들의 목표성장율이 결정되면 이로부터 도출되는 경제전체의 事前的 성장률 (G^*)이란 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G^*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3.2) \quad G^* = \sum_{i=1}^N g_i^* \cdot s_i$$

(s_i = 기업 i 의 시장 내에서의 비중, $\sum_{i=1}^N s_i = 1$, N : 기업수)

3.2. 均衡의 條件

이제 균형을 위한 조건을 생각해보자. 먼저 균형은 $G^* = G = Ge$ 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정4)의 경우를 상정하면 이는 목표성장율에 따른 기업수의 분포가 Ge 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형태를 띄게 됨을 의미한다(〈그림1〉 참조). 아울러 이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목표성장율을 갖는 기업들간에 그 기대성장율이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8) 기대이윤 (epr)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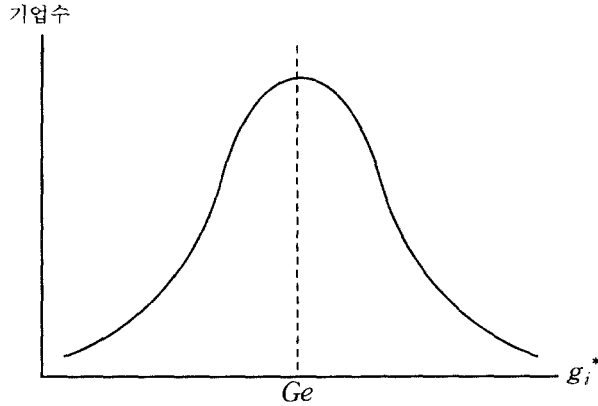
$$epr = \int_1^{\infty} P_e(g) \left[\sum_{i=0}^T \beta^i (R_i(g, g^*) - C_i(g, g^*)) + \beta^T K_T(g, g^*) \right] dg$$

$P_e(g)$ 는 주어진 Ge 하에서 기업이 예상하는 g 의 확률분포함수(하첨자 i 생략).

β 는 할인율 ($0 < \beta < 1$). $R_i(g, g^*)$, $C_i(g, g^*)$ 는 각각 i 기의 수익 및 비용.

$K_T(g, g^*)$ 는 T 기의 자본의 잔존가치

($\partial R/\partial g, \partial R/\partial g^*, \partial C/\partial g, \partial C/\partial g^*, \partial K_T/\partial g, \partial K_T/\partial g^* > 0$)



<그림 1>

시장내 기업들 중 $g_i^* > Ge$ 인 기업들, 즉 평균에 비해 위험선호적이고 적극적인 (혹은 성장선호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기업들의 그룹을 A , 반대로 안전지향적이고 위험기피도가 높아 $g_i^* < Ge$ 인 기업들의 그룹을 B 라 부르기로 하자.

$$(3.3) \quad g^*(A) > Ge, \quad g^*(B) < Ge$$

($g^*(A)$ 는 A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목표성장율의 가중평균치)

이제 $G^* = G = Ge$ 의 균형이 충족되었다고 할 때 이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그룹의 기대성장율 또한 서로 동일해야 한다. 만일 기대성장율이 두 그룹간에 차이가 날 경우 양그룹의 시장점유율이 변화함으로써 사전적 성장률(G^*)이 달라지고 따라서 균형은 파괴된다. 예컨대 { A 그룹의 기대성장율} > { B 그룹의 기대성장율} 인 경우 궁극적으로 { A 그룹의 시장점유율} > { B 그룹의 시장점유율} 가 되어 (3.2)식으로부터 G^* 는 상승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G^* 가 감소한다. 따라서 $G^* = G = Ge$ 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 A 그룹의 기대성장율} = { B 그룹의 기대성장율} 이 요구된다.

요컨대 균형의 조건은

$$\text{條件 1: } G^* = G = Ge$$

條件 2 : $eg(A) = eg(B)$

(A, B 는 각각 $g_i^* > Ge, g_i^* < Ge$ 인 기업 i, j 의 집합,

$eg(A)$ 는 A 에 속한 기업들의 기대성장율의 가중평균)

이제 기업의 기대성장율에 대해 생각해보자. 목표성장율이 주어진 경우 기업의 기대성장율(eg_i)은 생산능력증가율에 해당하는 그 기업의 목표성장율(g_i^*)과 그 기업에 대한 시장수요성장율(g_i), 그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ϵ_i), 그리고 기업의 倒産 가능성 등의 함수가 될 것이다. 목표성장율이 시장수요성장율보다 클수록(과잉설비) 기업의 손실과 그에 따른 도산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편의상 g_i^* 와 g_i 의 격차가 일정 값보다 크면 기업이 도산한다고 가정한다.

假定 6 : $g_i^* > g_i + d$ (d 는 일정 양수값) 이면 기업은 도산한다.⁽⁹⁾

따라서 기업의 실제성장율을 g_a 라 할 때 g_a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4) \quad g_a = \begin{cases} -1, & \text{if } g_i < g_i^* - d \\ g_a(g_i, g_i^*, \epsilon_i), & \text{if } g_i \geq g_i^* - d \end{cases}$$

단, $g_i \geq g_i^* - d$ 의 경우

$$(3.5) \quad \min(g_i, g_i^*) \leq g_a(g_i, g_i^*, \epsilon_i) < \max(g_i, g_i^*)$$

$$(3.6) \quad \partial g_a / \partial g_i, \partial g_a / \partial g_i^* > 0$$

즉 기업의 실제성장율(g_a)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g_i < g_i^* - d$ 의 경우)에는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수요성장율(g_i)과 생산능력증가율, 즉 목표성장율(g_i^*), 그리고 수요의 가격탄력성(ϵ_i)에 의해 결정된다. 단, 이 경우 실제성장율은

(9) 기업도산 조건식은 이같은 형태가 아닌 $g_i^* > hg_i$ ($h > 1$)의 형태를 가정해도 동일하다.

즉 기업의 도산이 시작되는 수요성장율과 목표성장율간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보다 상당 정도 작다는 사실만 충족하면 관계식의 함수형태는 어떤 형태를 취해도 이하의 논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_i, g_i^* 중 작은 쪽보다 같거나 크고 큰 쪽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¹⁰⁾

따라서 기업의 기대성장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7) \quad eg_i = \int_{-1}^{g_i^* - d} P(g_i) \cdot (-1) dg_i + \int_{g_i^* - d}^{\infty} P(g_i) \cdot g_a(g_i, g_i^*, \varepsilon_i) dg_i \quad (11)$$

($P(g_i)$: 주어진 G 하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성장율의 확률분포함수)

이제 (3.7)로부터 A, B 양 그룹의 기대성장율(eg)을 생각해보자.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A, B 그룹을 각각 대표하는 대표기업으로서 기업 x 와 기업 y 의 존재를 상정한다. 즉 A, B 그룹을 각각 하나의 기업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 x 의 목표성장율을 g_x^* , y 의 목표성장율을 g_y^* 라 하면 기업수 불변의 가정³⁾으로부터 g_x^*, g_y^* 는 균형하에서 $Ge (= G)$ 에 대해 대칭적인 위치에 놓인다.

즉 균형의 경우 어떤 양수값 k 가 존재하여

$$(3.8) \quad g_x^* = Ge + k, \quad g_y^* = Ge - k \text{가 된다.}$$

이제 단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假定 7 : g_a 의 함수형태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모든 기업에 대해 동일하다. 즉 $\varepsilon_i = \varepsilon_j \quad (\forall i, j)$

假定 8 : G 가 주어진 경우 수요성장율의 확률분포 ($P(g_i)$) 역시 모든 기업에 동일하다.

이 경우 기업 x, y 의 기대성장율의 차이 ($eg(x) - eg(y)$)

$$\begin{aligned} &= \left[\int_{-1}^{g_x^* - d} P(g_i) \cdot (-1) dg_i + \int_{g_x^* - d}^{\infty} P(g_i) \cdot g_a(g_i, g_x^*, \varepsilon) dg_i \right] \\ &- \left[\int_{-1}^{g_y^* - d} P(g_i) \cdot (-1) dg_i + \int_{g_y^* - d}^{\infty} P(g_i) \cdot g_a(g_i, g_y^*, \varepsilon) dg_i \right] \end{aligned}$$

(10) 실제성장율이 g_i, g_i^* 중 큰 쪽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면 극대화를 통한 목표성장율 설정의 의미가 없게 된다.

(11) (3.7)식에서의 $P(g)$ 와 註8) 식에서의 $Pe(g)$ 가 갖는 의미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註8)에서 (목표성장율 도출식에서의) $Pe(g)$ 는 기업이 전망하고 있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요성장율의 확률분포로서 추세성장율의 전망치 (Ge)의 함수이나, (3.7)식에서 (실제성장율의 기대치에서의) $P(g)$ 는 실제 수요성장율의 확률분포이므로 Ge 가 아닌 실제 추세성장율 (G)의 함수이다. 물론 $Ge = G$ 의 경우 양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begin{aligned}
 (3.9) \quad & (g_y^* - d > 1 \text{ 가정}) \\
 & = \int_{g_i^* - d}^{g_i^* - d} P(g_i) \cdot (-1) dg_i + \int_{g_i^* - d}^{g_i^* - d} P(g_i) \cdot [-g_a(g_i, g_y^*, \epsilon)] dg_i \\
 & + \int_{g_i^* - d}^{\infty} P(g_i) \cdot [g_a(g_i, g_x^*, \epsilon) - g_a(g_i, g_y^*, \epsilon)] dg_i
 \end{aligned}$$

이제 어떤 상수값 \bar{G} 에서 $G = Ge = G^* = \bar{G}$ 의 균형이 성립되었다고 하자. 안정적 균형의 조건 $eg(A) = eg(B)$, 즉 $eg(x) = eg(y)$ 로부터 $G = Ge = \bar{G}$ 에서 (3.9)식 = 0이 성립한다. (3.9)식의 각항의 값을 살펴보면, 제1, 2항은 (-)값을 가짐을 쉽게 알 수 있고, 제3항은 가정7)과 $g_x^* > g_y^*$ 및 (3.6)으로부터

$$(3.10) \quad g_a(g_i, g_x^*, \epsilon) - g_a(g_i, g_y^*, \epsilon) > 0$$

이므로, (+)이다.

즉 도산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의 기대성장율은 A그룹이 B그룹보다 높으나 A그룹의 도산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적극적인 기업은 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도산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할 경우 균형에서 적극적인 기업그룹의 기대성장율은 소극적인 기업그룹의 그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3.3 離陸(take-off) : 均衡의 離脫과 企業構成의 變化

그런데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 경제의 실제성장율이 기업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졌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기업의 예상보다 실제성장률이 높아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본고의 논리에서는 고도성장이 일어나기 위한 초기충격, 혹은 로스토우(W. Rostow)의 용어를 빌면 고도성장이 일어나기 직전의 離陸(take-off)단계에 해당하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G > Ge = \bar{G}$ 가 된 경우를 상정한다. 이 경우 (3.9)식의 값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먼저 (3.9)식의 각 구성요소들의 특성을 살펴보자.

첫째, 개별기업의 목표성장율 (g_i^*)은 기업의 예상추세성장율 (Ge)로부터 결정되므로 예상외의 G 상승시 Ge 에 변화가 없는 한 기업의 목표성장율에는 변화가 없다.

$$(3.11) \quad \partial g_i^* / \partial G = 0$$

또 개별기업에 대한 수요의 확률분포함수 $P(g_i)$ 는 경제전체의 실제성장을 G 를 중심으로 하는 분포이므로 G 의 상승(하락)은 $P(g_i)$ 의 분포를 그만큼 우(좌)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임의의 값 m 에 대해

$$(3.12) \quad \partial P(g_i | g_i > m) / \partial G > 0$$

(m 은 -1 보다 큰 임의의 값)

의 관계가 성립하며, 또한 임의의 값 G_0 와 어떤 값 u, v 에 대해

$$(3.13) \quad \left. \frac{\partial P(g_i | u < g_i < v)}{\partial G} \right|_{G=G_0} < 0$$

(u, v 는 $(u+v)/2 < G_0, u < v$ 인 임의의 값)

의 관계가 성립한다(〈그림2〉 참조).

이제 위 특성을 바탕으로 균형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G 의 상승이 있을 때 (3.9)식(각항)의 변화를 살펴보자.

① (3.9)식 제3항 : G 상승시 g_i, ϵ 에는 영향이 없고 또 (3.11)로부터 g_x^*, g_y^* 도 불변이므로

$$(3.14) \quad \frac{\partial [g_a(g_i, g_x^*, \epsilon) - g_a(g_i, g_y^*, \epsilon)]}{\partial G}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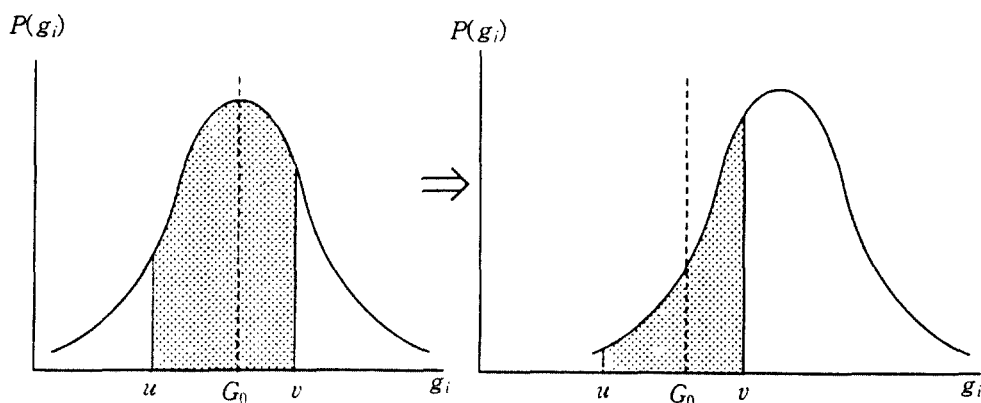
이고, (3.12)로부터

$$(3.15) \quad \frac{\partial P(g_i | g_i > g_x^* - d)}{\partial G} > 0$$

따라서 (3.10), (3.14), (3.15)으로부터 제3항의 값은 증가한다.

② (3.9)식 제1, 2항 : (3.8)과 $d > 0$ 으로부터

$$(3.16) \quad \frac{(g_y^* - d) + (g_x^* - d)}{2} < \bar{G}$$



<그림 2>

(3.16), (3.13)으로부터

$$(3.17) \quad \frac{\partial P(g_i | g_y^* - d < g_i < g_x^* - d)}{\partial G} \Big|_{G=\bar{G}} < 0$$

따라서 제1항과 제2항 역시 증가한다⁽¹²⁾ (절대값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균형으로부터 예상치 않았던 G 의 상승시 (3.9)식의 값은 증가한다. 즉 균형의 주위에서

$$(3.18) \quad \partial[(3.9)식의 값] / \partial G > 0^{(13)}$$

(12) 제2항의 경우 (3.11)로부터 $-g_a(g_i, g_y^*, \epsilon_i)$ 는 G 상승에도 변화가 없다.

(13) 더욱이 기업들이 지나치게 적극적이지만 않다면, $g_y^* - d$ 에서 $g_x^* - d$ 에 이르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P(g_i)$ 의 분포의 중심($g_i = G$)보다 좌측으로 편향되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g_x^* - d$ 가 G 보다 상당히 크지 않은 한 그 구간은 G (분포의 중심)보다 좌측으로 편향되어 위치한다. $g_x^* - d$ 는 기업 x 가 도산하기 시작하는 수요 성장율이므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이것이 G 보다 상당히 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요컨대 기업들이 지나치게 적극적이지만 않다면 (3.14)식은 균형의 주위에서만 아니라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경우 (3.9)식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따라서

$$(3.19) \quad eg(A) > eg(B)$$

가 된다.⁽¹⁴⁾

다시 말해 균형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경제성장율이 높아진 경우, 성장에 적극적인 기업들의 그룹이 성장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그룹보다 확률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다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균형에서 양그룹의 기대성장율을 같게 하는 것은 도산가능성의 존재이다. 즉 A그룹은 성장에 적극적인 만큼 도산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그룹의 기대성장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성장율이 기대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도산가능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양그룹의 기대성장율에 불균형이 초래된다. 물론 이 경우도 여전히 A그룹의 도산가능성은 B그룹의 그것보다 크지만, 위 식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도산가능성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도산가능성이 큰 A그룹의 기대성장율을 더 많이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A그룹이 B그룹보다 높은 기대성장율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예상외로 경제가 더욱 크게 성장한 경우 적극적 행태를 가진 기업이 보수적인 기업보다 그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관계는 직관적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이 경우 그룹 A의 시장점유율을 $s(A)$, B의 시장점유율을 $s(B)$ 라 하면, (3.19)로부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3.20) \quad \frac{d(s(A))}{dt} > \frac{d(s(B))}{dt}$$

(t 는 시간)

기업이 기대를 바꾸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¹⁵⁾, 예상외의 성장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A그룹의 시장내 비중은 증가한다.

(14)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기업규모가 모두 동일하고 따라서 균형에서 목표성장율에 따른 시장내 기업들의 분포가 Ge 를 중심으로 대칭적인 경우를 가정하였지만, 기업규모가 A그룹과 B그룹간에 서로 다르고 따라서 균형에서 기업수의 분포가 Ge 에 대해 대칭적이 아니더라도 위 논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컨대 평균보다 2배 큰 기업 2개는 평균 크기의 기업 4개로 간주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분포는 얼마든지 대칭적인 분포로 치환될 수 있다.

(15) 3.1.의 기대형성식 참조.

$$(3.21) \quad s(A) > s(B)$$

즉 적극적 유형의 기업이 시장내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3.2), (3.3), (3.21)으로부터

$$(3.22) \quad G^*(\equiv \sum_{i=1} g_i^* \cdot s_i) > Ge$$

가 불가피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대성장율의 격차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A그룹의 시장점유율은 B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그 결과 시장은 A 유형의 기업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띠게 된다.⁽¹⁶⁾ 이는 마치 전체경제가 적극적 편향(A그룹 유형의 특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적극적 유형 기업의 비중이 지배적이 됨에 따라 경제전체로서도 사전적 성장률이 예상추세성장율을 상회하는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3.4. 成長의 加速(高度成長의 實現)

이제 투자재원 무제약, 루이스경제의 가정을 상기하자. 이같은 경제의 경우 공급측면에서는 성장의 제약이 없으므로 성장의 제약은 오로지 투자수요, 즉 기업의 투자증가율에 달려있다. 즉 G^* 가 성장률을 결정한다. 따라서 (3.22)에 의해 G^* 가 상승하면 이는 곧 실제성장율(G)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상외의 성장을 가져오는 외생적 힘(충격)이 없어도 성장률은 애초 균형에서의 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된다.

앞서 가정한 Ge 의 기대형성모형을 가정할 때, 이처럼 기대보다 높은 성장이 지속되면 Ge 는 점차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3.21)의 기업구성과 (3.19)의 관계가 변화하

(16) 단, 이같은 결과는 시장평균보다 적극적(성장지향적)인 기업그룹과 그렇지 않은 기업그룹이라는, 시장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기업(그룹)간에 대해서만 성립하지, 일반적으로 성장지향적인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목표성장율분포의 우측사면에 위치하는 2개의 기업(모두 시장평균보다 성장지향적인 기업)에 대해 살펴보자. 이들 두 기업의 목표성장율을 $\alpha, \beta (\alpha > \beta)$ 라 할 때, 기업도산을 가져오는 수요성장율인 $\alpha - d, \beta - d$ 가 수요성장율 확률분포의 우측사면에 위치하였다면($(\alpha - d), (\beta - d) > G$), (3.9)식의 제1항과 2항은 예상치 않은 G 의 상승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절대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예상치 않게 G 가 상승한 경우 목표성장율 α 인 기업의 기대성장율이 목표성장율 β 인 기업의 기대성장율보다 반드시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요컨대 예상치 않은 G 상승시, 목표성장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확률이 크다는 명제(시장의 과점화 경향)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 않는 한 (3.22)의 관계는 계속 성립하며 적극적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한다. 따라서 시장의 기업구성이 $G^* > Ge$ 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성장율(Ge)이 상향조정되면 경제의 사전적 성장률(G^*)은 더욱 상승한다. 그 결과 루이스경제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실제성장율, 기대성장율, 사전적 성장률은 누적적인 상승과정을 보인다. 즉 전체경제의 적극편향화(적극적 기업의 점유율 증가추세)와 성장 가속이 누적적 상승과정을 보이는 선순환(善循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3.5. 高度成長의 終了

물론 이같은 고도성장이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경우 고도성장은 루이스적 경제의 가정이 유효한 한에서만 성립한다. 루이스적 경제의 조건이 사라지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의 제약이 발생하므로 더 이상 G^* 가 그대로 실제성장율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실제성장율이 낮게 제약되면, 고도성장기를 통해 높아진 시장의 적극편향화 경향이 이제는 과도한 적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시장의 기업구성 역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본고의 모형은 고도성장(공급측면 무제약의 경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루이스적 조건이 사라진 이후의 묘사에는 그다지 적합치 않지만 간단한 논리적 시사는 얻을 수 있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루이스적 조건이 사라진 시점이 그 경제의 균제 상태 도달 시점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자.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율의 합으로 제약된다. 균제성장률을 G_s 라 표기할 때, 균제 상태에 도달하면 궁극적으로 $Ge = G^* = G = G_s$ 가 불가피하다. 앞의 Ge 결정식의 가정(적응적 기대모형)으로부터 $Ge = G$ 로 귀결됨은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G^* = G (= Ge)$ (즉 $eg(A) = eg(B)$)의 균형회복 메카니즘은 위의 모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모형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균형회복과정을 생각해봄으로써, 위의 모형을 통해 제시된 고도성장과 시장구성의 적극편향화 현상으로부터 고도성장이 종료된 이후의 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시사를 얻을 수 있다.

$G^* \neq G$ 의 경우는 실제적인 시장의 불균형(과잉 혹은 과소 생산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 궁극적으로 $G^* = G (= Ge)$ 의 균형이 불가피할 것임은 틀림 없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G^* = G (eg(A) = eg(B))$ 의 균형회복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도성장기의 $eg(A) > eg(B)$ 로부터, 균제성장률로 이행한 후 $eg(A) = eg(B)$ 의 균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즉 첫째 A 그룹

에 속한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모형에서 (3.9)식의 감소)함으로써 A그룹의 비중이 감소하거나⁽¹⁷⁾, 둘째 $G^* > G$ 에 따른 시장 불균형(과잉생산능력)의 결과(목표성장율 도출식(註8 참조)에서 수익함수나 생산함수의 이동을 통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목표성장율을 낮춤으로써 A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B그룹 소속기업은 증가하여 $eg(A) = eg(B)$ 가 실현되는 것이다.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과정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模型의 經濟的 意味와 經驗的 適合性

이상에서 전개한 모형은 고도성장의 수요측면에서의 조건을 설명하는 하나의 논리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서 고도성장은 공급측면에서의 잠재적 조건(루이스 경제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에 正의 성장률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촉발된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로스토우의 소위 이륙(take-off)에 해당하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고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본모형에 따를 때, 고도성장이 실제 촉발되기 위해서는 正의 성장률 충격은 기업구성의 意味있는(significant)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크기 내지 지속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크기는 이륙을 위한(혹은 저성장 균형(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변화의 臨界值(threshold level)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1〉 高度成長期 韓國과 日本의 投資率 推移

1) 한국

연 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투자율(%)	10.0	14.1	26.2	28.8	32.0	29.9	36.9	38.3*

2) 일본

연 도	1955	1958	1960	1963	1965	1968	1970	1973
투자율(%)	12.5	17.6	22.1	22.8	21.4	25.0	27.5	26.8

註 : 한국은 총투자/GDP, 일본은 민간총투자/GNP

* 는 추정치

資料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및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譜』 각년호.

(17) 루이스적 조건의 소멸과 더불어 성장률이 제약되므로 이는 예상되지 않은 성장률 저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상되지 않은 성장률 저하는 위 모형에서 (3.9)식의 감소 및 기업의 도산가능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정의 성장을 충격에 의해 기업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고도성장은 자기실현 메카니즘을 확보하게 된다. 그 이후는 하나의 누적적 상승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적극적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투자율 및 성장률을 높이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을 통해 유희노동력이 사라지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루이스적 경제의 조건이 사라진다. 그 결과 성장률은 공급측면에서 제약되고 고도성장은 종료된다. 그리고 고도성장의 종료는 기업구성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이는 기업의 적극성의 완화 및 적극적 기업의 도산 증가를 수반한다.

한편 이같은 본고의 모형을 통해 제시된 고도성장과 기업의 동태적 적극성의 논리는 실제 근대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거친 경제의 경험에 비추어 매우 시사적이라 생각된다.

첫째로는 서두에서 이미 거론하였지만 실제 고도성장을 보이는 경제에서 기업의 다이내미즘과 관련된 사실이다.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는 경제의 투자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유난히 높게 나타난다. 더욱이 투자율은 고도성장의 진전과 더불어 추세적으로 높아진다(〈表 1〉참조). 위에서 전개한 본고의 모형은 이같은 특징적 현상들의 배경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논리를 제공한다.⁽¹⁸⁾ 아울러 본고의 논리는 고도성장경제에서 적극적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통해 고도성장기 우리나라나 과거 일본 등의 기업행태의 적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둘째로는 고도성장의 기대(예상)와의 관련성이다. 본고의 모형에 따르면 고도성장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의 형태로 진전된다. 그런데 실제 고도성장기의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실제 고도성장이 그러한 형태(예상보다 높은 성장)로 진전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양국의 고도성장기 경제계획에서의 경제성장의 실적치와 계획치(전망치)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⁹⁾ 〈表 2〉를 보면 실제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 성장률의 전망치가 실적치를 대부분 하회하는 추이를 나타내,⁽²⁰⁾ 고도성장이 예상밖의 높은 성장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역시 고도성장기를 통하여 소위 경제개발계획에서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계획치를 초과하여 왔음을 상기할 수 있다(〈表 3〉 참조).

(18) 다른 조건이 동일한 한 투자율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높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높은 투자율은 고도성장의 원인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고도성장경제의 높은 투자율이 이들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 이같은 측면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투자율뿐 아니라 저축율도 상승하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소비(증가율)가 항상소득(증가율)의 함수로 결정된다고 상정할 때 예상외의 소득증가율 상승은 저축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20) 반면 고도성장이 종료된 이후에는 뚜렷한 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表 2〉日本の 成長率 豫測과 實績(%)

年	(A) 實質GNP 成長率	(B) 政府 전망치	(C) = (B) - (A)
1955		4.5	
56	6.3	4.2	-2.1
57	8.2	6.5	-1.7
58	6.7	3.0	-3.7
59	11.0	5.5	-5.5
60	12.0	6.6	-5.4
61	11.5	9.2	-2.3
62	7.6	5.4	-2.2
63	10.0	6.1	-3.9
64	9.7	7.1	-2.6
65	6.3	7.5	1.2
66	11.2	7.5	-3.7
67	10.9	9.0	-1.9
68	12.8	7.6	-5.2
69	12.1	9.8	-2.3
70	8.1	11.1	3.0
71	5.2	10.1	4.9
72	9.0	7.2	-1.8
73	4.7	10.7	6.0
74	-0.2	2.5	2.7
75	4.0	4.3	0.3
76	4.0	5.6	1.6
77	4.8	6.7	1.9
78	5.1	7.0	1.9
79	5.5	6.3	0.8
80	3.2	4.8	1.6
81	3.2	5.3	2.1
82	3.5	5.2	1.7
83	3.0	3.4	0.4
84	4.5	4.1	-0.4
85	4.8	4.6	-0.2
86	2.9	4.0	1.1
87	4.9	3.5	-1.4
88	5.9	3.8	-2.1
89	4.8	4.0	-0.8

資料: 經濟企劃廳, 『見通しと經濟運營の基本的態度』
(吉川洋(1992) p.179에서 재인용)

〈表 3〉 高度成長期 韓國의 成長率 前望(計劃值)과 實績值(%)

기 간	제1차계획 (1962-1966)	제2차계획 (1967-1971)	제3차계획 (1972-1976)	제4차계획 (1977-1981)	제5차계획 (1982-1986)	제6차계획 (1987-1991)
계획치 ¹⁾ (a)	7.1	7.0	8.6	9.2	7.6	7.3
실적치 ²⁾ (b)	7.8	11.0	9.1	5.7	9.8	10.3
a - b	-0.7	-4.0	-0.5	3.5	-2.2	-3.0

資料: 1) 경제기획원

2)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세번째로는 고도성장의 종료 이후의 조정과정과 관련된 측면이다. 본고의 논리에 따르면 고도성장의 종료와 더불어 경제는 $eg(A) > eg(B)$ ($G^* > Ge$)로부터, $eg(A) = eg(B)$ ($G^* = Ge$)로의 조정과정(과도한 다이내미즘의 조정)을 겪게 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조정과정은 기업 행태 내지 구성의 커다란 변화, 즉 기업도산의 증가와 기업행태의 보수화(적극성의 감소)를 수반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고도성장의 종료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는 우리경제의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사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과거 일본이 1970년대 중반 고도성장의 종료를 전후한 시기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매우 시사적이다. 〈表 4〉에서 보듯 고도성장 전후의 일본기업의 경영구조를 비교하면 고도성장이 종료된 후 기업들의 경영지표는 훨씬 보수적(내지 안정지향적) 구조를 보인다. 물론 이같은 변화는 반드시 본고의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고의 논리와 정합적임은 틀림 없다.

〈表 4〉 高度成長期와 그 以後의 日本企業 經營構造 變化

(단위: %)

	고도성장기(1963-1972)	저성장기(1978-1987)
매출 증가율	13.9	5.3
총자본증가율	13.0	5.5
경상이익 증가율	10.6	7.6
자기자본 비율	24.2	27.4
부채비율	313.2	273.5
내부자금 비율	42.7	54.2

資料: 宇澤弘文(1989) pp.128-130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나 고도성장기의 일본 기업등 고도성장경제의 기업들이 강한 성장지향성을 보인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공급측면에서 고도성장의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제에 어떤 正의 성장충격이 가해진 경우 이것이 기업구성의 변화를 초래하여 성장지향성이 강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마치 전체 경제(기업)의 성장지향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옴을 보였다. 이는 미시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기업의 성장지향성,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고도성장경제가 두드러지게 높은 투자율을 보이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본고의 논리는, 고도성장 종료후에는 새로운 균형수렴과정이 기업구성의 재변화(과도한 성장지향성의 조정)를 불가피하게 하며, 그 결과 적극적인 기업의 도산 증가를 수반함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도성장 종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우리경제의 기업도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한다.

한편 본고의 기본논리, 즉 시장에서의 일시적인 충격이 기업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전체 경제 행태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로 확산되는 측면은 비단 고도성장뿐 아니라 누적적 변화를 수반하는 여타 경제현상에 대해서도 쓸모 있는 설명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공급측면에서 변화에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 (G^* 의 변화가 그대로 G 의 변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루이스적인 경제를 상정하였지만, 그같은 개발도상경제뿐 아니라 성숙한 경제에서도 위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없지 않다. 예컨대 경제의 성장과 달리 침체가 심화(성장을 감소)되는 데는 공급측면에서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침체상태에 있는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서는 경우 유희자원의 존재로 성장의 제약이 약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기본논리는 적용가능하다. 즉 고도성장과는 정반대 현상인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침체의 전개과정이나, 혹은 반대로 침체로부터 어떤 正의 충격이 가해져 경제의 회복이 확산되는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본고의 논리는 하나의 도구로써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일본연구센터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전화 : (02)962-6211(교 437)

팩시 : (02)959-5894

參 考 文 獻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譜』, 各年號.
- 吉川洋(1992): 『日本經濟とマクロ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 宇澤弘文(1989): 『日本經濟-蓄積と成長の軌跡』, 東京大學出版會.
- Bai, Moo-Ki(1982):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e Developing Economies*, June.
- Fei, J. C. H. and G. Ranis(1964): *Development of the Labour Surplus Economy : Theory and Policy*, Richard Irwin.
- _____ (1975): "A Model of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Open Dualistic Economy: The Case of Korea and Taiw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1(2), January.
- Lau, L. and J. Kim(1992):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on the Pacific Rim*, Research Publication No. 295, Center for Economic Policy, Stanford University.
- Lewis, W. A.(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
- _____ (1958): "Unlimited Labour : Further Notes,"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6.
- Minami, R.(1973) *The Turning Point in Economic Development : Japan's Experience*, Kinokunia.
- Odagiri, H.(1981): *The Theory of Growth in a Corporate Economy ; An Inquiry into Management Preference, R&D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low, R.(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ruary.
- Summers, R. and A. Heston(1991): "the Penn World Tables(Mark5) : An Expanded Set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1950-88,"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 World Bank(1993): *The East Asian Miracle :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Young, A.(1994a): "The Tyranny of Numbers :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NBER Working Paper* No. 4680, March.
- _____ (1994b): "Lessons from the East Asian NICs : A Con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38.